서울주보

제2442호
2023년 4월 9일(가해)

주님 부활 대축일

발 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 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 쇄 가톨릭출판사
전 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tube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예수 승리 | 이남규 루카, 각 110x450cm, 달드베르 스테인드글라스, 1974년, 중림동 약현성당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밤(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 부활 감사송 1 <파스카의 신비> -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GENIE TV 231번 / Btv 297번 / U+tv 274번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

제 1 부 성야의 장엄한 시작, 빛의 예식
(불 축복과 파스카 초의 마련, 행렬, 파스카 찬송)

제 2 부 말씀 전례

제1독서 | 창세 1,1-2,2<또는 1,1.26-31ㄱ>

화 답 송 | 시편 104(103),1-2ㄱ.5-6.10과 12.13-14ㄴ.24와 35ㄷ(◎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2독서 | 창세 22,1-18<또는 22,1-2.9ㄱ.10-13.15-18>

화 답 송 | 시편 16(15),5와 8.9-10.11(◎ 1)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3독서 | 탈출 14,15-15,1ㄱ

화 답 송 | 탈출 15,1ㄷㄹㅁ-2.3-4.5-6.17-18(◎ 1ㄷㄹ)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제4독서 | 이사 54,5-14

화 답 송 | 시편 30(29),2와 4.5-6.11-12ㄱ과 13ㄴ(◎ 2ㄱㄴ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5독서 | 이사 55,1-11

화 답 송 | 이사 12,2-3.4ㄴㄷㄹ.5-6(◎ 3)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제6독서 | 바룩 3,9-15.32-4,4

화 답 송 | 시편 19(18),8.9.10.11(◎ 요한 6,68ㄷ)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제7독서 | 에제 36,16-17ㄱ.18-28

화 답 송 | 시편 42(41),3.5ㄱㄴㄷㄹ; 43(42),3.4(◎ 42(41),2)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서 간 | 로마 6,3-11

복음환호송 | 시편 118(117),1-2.16-17.22-23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복 음 | 마태 28,1-10

제 3 부 세례 전례
(성인 호칭 기도, 세례수 축복, 물 축복, 세례 서약 갱신)

제 4 부 성찬 전례

영성체송 | 1코린 5,7-8 참조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주님 부활 대축일
낮 미사

입 당 송 | 시편 139(138),18.5-6 참조

제1독서 | 사도 10,34ㄱ.37ㄴ-43

화 답 송 | 시편 118(117),1-2.16-17.22-23(◎ 2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또는 ◎ 알렐루야.)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2독서 | 콜로 3,1-4<또는 1코린 5,6ㄴ-8>

부 속 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 1코린 5,7.8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복 음 | 요한 20,1-9
<또는 마태 28,1-10 또는 저녁 미사에서는 루카 24,13-35>

영성체송 | 1코린 5,7-8 참조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렇게 또다시 봄이 왔어요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유학하던 시절, 가장 그리운 것은 한국의 봄이었어요. 유럽의 봄은 한국의 봄과 많이 달라 벚꽃, 개나리, 철쭉 같은 아기자기한 꽃들을 거리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날도 덥거든요. 그러니 고국의 아름다운 꽃들과 적당히 시원한 바람이 참으로 그리울 수밖에요. 하지만 공부를 마치고 한국의 본당에서 처음 맞이하게 된 봄은 꽤나 실망스러웠답니다. 코로나로 본당의 문을 굳게 닫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름다운 꽃이 만발했지만 아이들과 신자 분들과 미사를 드릴 수 없는 봄, 조용한 거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세상의 뉴스들. 그야말로 어두운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흘렀고, 성주간이 지나 부활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부활 대축일 미사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기쁜 부활인데 지금껏 내가 너무 잃어버린 것들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자 제 주변의 소중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조촐하게나마 미사를 함께 거행하는 신부님과 수녀님들, 미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랑스러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마음 아파하며 기도로 함께하시는 신자분들이 떠올랐어요. 전에는 당연한 것이라 지나쳤지만 더없이 소중한 것들이 제 주변에 있었답니다.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한달음에 달려가지요.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비참함, 당연한 것이라 여겼던 예수님의 소중한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그들의 심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초조함과 혹시 부활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빨리 달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느껴지지요. 그리고 마침내 잘 개켜진 수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던 일상의 소중함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지요. 어쩌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현존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보다는 부족한 것들만 돌아보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깨달아야 해요.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온 내 주변의 소중한 것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그렇게 매서운 겨울을 뚫고 찾아온 봄날의 햇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이렇게 드러났고,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하게 됩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나를 기다려주는 이가 있음은 더욱 큰 은총이지요. 이렇게 우리를 항상 기다리시며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예수님이 돌아오셨으니 어찌 오늘 기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화답송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작품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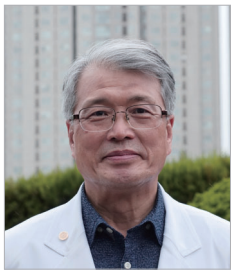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요한 20,9)

내 자신의 고난을 알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지,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매일 죽음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도움으로 지난날의 나를 버리고 감히 아름다운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희망합니다. 서소문 순교성지를 내려다보는 약현 언덕에 한국인 최초로 만든 스테인드글라스는 시간을 넘어 반짝이는 빛으로 순교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말씀의 이삭

내과 의사를 꿈꾸다 신경외과 의사가 된 사연



고영초 가시미로
요셉의원 병원장

의예과 시절(1971-1972)에는 휴학과 휴교가 잦아, 주로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 활동을 하며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본과에 진입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고교 시절 배웠던 라틴어가 빛을 발해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등 학점 부담이 큰 과목도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던 덕분이었습니다. 여유가 생긴 덕에 가톨릭학생회에 가입하여 틈틈이 서울 변두리 지역 진료는 물론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한 장기 진료에도 참여하며 재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973년 청계천이 복개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과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천막촌을 형성한 성남시, 수색, 응암동 등을 찾아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말 진료도 다녔습니다. '사제의 길에서 벗어나 하느님께 죄송했던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갚겠다!'라는 유치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치과대학 가톨릭학생회와 합동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학창 시절 대부분을 주말마다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으로 보내곤 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평소 봉사를 나갈 때면 내과 교수님들이 청진기 하나로 심장 판막증, 폐결핵 등을 진단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 내과를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졸업반이던 1976년 3월 17일 저녁, 아버지께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 뇌수술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섯 시에 수술이 끝나 중환자실로 나온 아버지는 12월 2일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의식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침대 옆에 간이 침대를 놓고 자면서 아버지의 가래를 뽑고 체위를 변경하며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친한 동기생들과 가톨릭학생회 후배들의 도움으로 그나마 잠을 좀 자면서 의과대학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티(CT)라는 정밀 진단 기계가 국내에 도입되기 전이라, 수많은 뇌 질환을 혈관 촬영이나 척추 검사로 진단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술 사망률이나 합병증이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기에, 신경외과 과장님께 신경외과 전공을 권유를 받고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아버지의 사고를 통해 저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뜻을 느끼고 결국 신경외과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난 38년 동안 뇌종양 환자 3,100여 명을 포함해 8,000여 명의 뇌환자들을 수술했습니다. 시신경 근처 종양이나 청신경 종양을 수술하면서 성경의 예수님께서 맹인과 귀머거리 환자를 고치신 기적을 체험하고, 간질이나 반신불수로 내원한 뇌종양 환자들이 수술 후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적을 자주 체험했습니다. 아버지의 교통사고를 통해 주님께서 저를 신경외과 의사로 부르셨음을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톨릭 신학

09

천지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2 : 섭리하시는 하느님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섭리라는 말은 뭔가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뜻인 것 같아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제로 잘 체험되지 않아서인지, 혹은 인간 주도적인 세상이어서인지 친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대 사상 중에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창조 이후에는 인간 역사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교회는 창조가 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을 유지하실 뿐 아니라 그 궁극적 목적으로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하느님의 이러한 활동을 가리키는 단어가 섭리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창조 신앙이 어떤 순간의 사건만이 아니라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우주의 완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페 1, 3-10에서는 하느님께서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조는 그 완성을 향해 일어난 사건이고, 그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콜로 1,16)

그런데 이레네오 성인이 '성자와 성령은 창조에 있어 성부의 두 손'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흥미롭습니다. 창조에서 성령의 역할은 신약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교회의 전통 안에서는 종종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는 성령을 가리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신데 성령께 대해서도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창조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업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점이 창조주 하느님께 대한 신앙에서 그리스도교가 유다교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창조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업적이며 그 궁극적 완성을 향해 있다는 가르침은 인간 역사 안에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하느님은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시대에 당신 아들을 보내셨고, 이 아들이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으며, 이 분을 믿는 이들에게 생명이 선사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을 믿게 하시는 이가 곧 성령이십니다. 인간 역사를 완성으로, 그리고 각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활동을 가리키는 단어가 곧 섭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섭리의 일차 원인이시지만,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이차 원인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무한한 차이를 고려할 때, 이것은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에 있어 하느님의 위대함이기도 합니다. 섭리에 대한 신앙은 로마 8,28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생명은 봄과 함께 오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마태 28,5-6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굴레를 깨뜨려주시고, 새 생명을 선물해 주십니다. 새로운 희망을 선사해 주십니다. 주님 부활의 은총과 생명 그리고 새 희망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증의 긴 터널을 힘겹게 통과하는 동안, 지구 곳곳에서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지난 2월에는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까지 있었습니다. 더하여 점증하는 기후 위기는 지구 어느 편 이야기가 아니라 전 지구적, 세계 공통의 압도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세상살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겨울의 두꺼운 얼음 밑에서 동토를 뚫고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듯, 죽음의 굴레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빛, 희망의 빛을 새롭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개별화와 개인화의 추세가 대세를 이루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한편으로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우

주의 중심이고, 자기 삶의 주인공이라는 인식은 맞습니다. 세계사의 흐름도 큰 틀에서는 절대왕정같이 소수의 권력자에게 집중되어 있던 '주인공으로서의 삶'이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나눠지는 과정을 향하여 역사는 흘러왔고, 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각자가 주인공인 이 세상 삶에서 서로 다른 각자를 상호 존중하기보다는 분자화, 고립화로 가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분자화된 개인들을 묶어주는 연결점은, 불행히도, '죽음'이라는 공통점뿐인 듯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죽음의 끈'이 모든 인간을 하나의 공통점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끈인 듯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개별화된 인간 - 죽음만이 우리 개개인을 묶어주는 유일한 공통점이었던 개별화된 인간을 넘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인간에게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새로운 연결점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끈으로 묶인 채 저마다 제 잘났다고 아우성치며 '밟고 올라서서 높은 곳을 향하겠다.'는 우리 각자에게 죽음의 끈을 끊어 주시고, 우리 모두의 시원(始原)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향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어찌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찌 놀라운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천 년 전에 박제된 고고학이 아니라, 긴 어둠의 터널을 힘들게 걸으며 죽음이라는 공통점만 갖고 있던 개별화된 우리 인간을 '새 생명'으로 엮어주신 '지금, 여기서' '나를 위한 사건, 우리 모두를 위한 사건,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대하게 해 주는 사건, 대(大)생명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재물의 많고 적음을 넘어서, 정치적 당파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종교를 넘어서, 인류 모두가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참진리를 향해, 참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전(全) 인류적 시노드('함께 가는 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마태 28,5-6) 코로나 감염증은 끝나가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우리네 살림살이에 새로운 희망을 길어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성당의 제대 위에서 거행되는 미사성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인류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끈'을 끊어주시고, '생명'으로 묶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미사성제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새롭게 나아갑시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이 있음에 눈뜨고 따뜻한 손길을 나누며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작은 무언가를 시작해 봅시다. 생명은 봄과 함께 오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과 새 빛이 어려움 중에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북녘 동포들에게도 널리 비추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모든 피해자들과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들에게도 따뜻이 비치기를 기도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 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十정순택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첫 신자 공동체의 삶 1
(사도 2,42-47)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명동성당에서 예비자 교리반을 맡았을 때, 예비 신자분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결심하게 되었는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나눔 가운데에는, 유럽 여행을 하면서 웅장하고 성스러운 교회 건축물들을 보고 세례를 다짐하게 되었다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을 갖게 하는 성령의 위업에 감탄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람들 사이의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세례를 통한 회개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후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음을 삼천 명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증언합니다.(2,41) 이렇게 늘어난 신자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공동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전해줍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2,42)

첫째로, 새 신자가 된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수되었다는 뜻입니다. 루카 복음서 첫 대목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루카 1,2) 루카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과 행적, 말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등이 담긴 것으로 보아, 사도들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교리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교리 교육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었던 셈입니다. 또한 지금도 사도들의 가르침은 교황님과 주교단을 통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신자분들 중에는 교회의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그 가르침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 각자의 삶과 가치관을 옹호하는 논거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의 흐름과 달라 답답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며 실천해야 할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친교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교는 단순히 우정을 나눈 것 이상입니다. 루카는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2,44)하였다고 전해줍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모습은 그들이 어떤 친교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욕심은 버리고, 가족 같은 친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나눔과 섬김이 바로 초대교회 신자들의 친교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설립된 교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섬김과 나눔의 친교를 통해 그 가르침을 실천하여, 말씀과 하나 된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과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주교회의 2022년 춘계 정기총회 결과

❶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가 제출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개정안)를 승인. 현재 승인된 '사목 지침서'는 1995년 발표됨. 그러나 그동안 교회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사목 지침서'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음. 이에 교회법위원회는 '사목 지침서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지침서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규범적인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것과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할 지침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지침서의 개정 작업을 진행해 옴. 이 개정안은 사도좌의 인준 절차를 거친 다음에 공포될 예정.

❷ 주교회의 2020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한국 천주교 사제 양성 지침」(개정안)이 사도좌의 추인을 받았음. 교황청 성직자성(현 성직자부)의 2021년 9월 14일자 공문을 확인하였으며, 성직자부의 요청에 따라 몇 가지 수정 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본을 사도좌에 제출하기로 함.

❸ 2023년 한국 천주교회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로 '학교 밖 청소년 노동자'(9세부터 24세)를 선정하고, 사목적으로 이들을 더욱 배려하기로 함. 이에 앞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는 생계를 위하여 노동시장에 뛰어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불합리한 노동환경을 지적하며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이탈로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교회 차원에서 돕고자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회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음.

❹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한 전구 기도 안내 리플릿'을 최종 선정하고 전국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함.

❺ 16개 교구에서 주교회의로 보내온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지원금(2023년 3월 13일 기준, 총 4,265,309,986원)을 교황청에 전달하고, 한국 교회 신자들의 정성을 모은 지원금이 지진 피해 구호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교황님께 서한을 보내기로 함.

❻ 2023년 10월 4-29일 로마에서 개최되는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를 위하여 2023년 5월 31일(수)에 성모 기도의 날 행사를 각 교구에서 교구장 주교의 재량에 따라 갖기로 함. 이는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주교대의원회의 사무처는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1회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이며 성모 성월의 마지막 날인 2023년 5월 31일(수)에 성모 기도의 날을 거행하여 줄 것을 각국 주교회의에 요청함.

❼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생태환경위원회에서 마련한 2023년 주교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주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기로 함.

❽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2023년 12월 11일) 기념 미사를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봉헌하기로 함.

❾ 주교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선임함.(교리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신철 주교 /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 /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 /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서상범 주교 / 순교자현양과 성지순례사목위원회 위원장: 구요비 주교 / 청소년사목위원회 위원장: 김종강 주교 / 천주교 용어위원회 위원장: 조규만 주교)

❿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에 참가할 한국 주교회의 대표로 정순택 대주교를, 교체 대표로 손삼석 주교를 선출함.

⓫ 2023년 리스본 세계청년대회(8월 1-6일) 기간에 3일간 진행되는 교리 교육을 담당할 주교로 김종강 주교, 한정현 주교, 신호철 주교를 선정함.

⓬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를 표현하고자 주교들이 자율적으로 기부하여 조성된 '착한 사마리아인 기금'의 2023년 사용처를 검토하고, 외국 교회의 수도자 양성과 교황청립 로마한인신학원에 거주하는 가난한 나라들의 사제들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함.

⓭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를 전국 사도직 단체로 인준하고 회칙을 승인함. 한편, 기존의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시그니스 서울, 가톨릭신문출판인협회가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로 통합됨에 따라,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의 전국 사도직 단체 인준을 취소함.

교구청 알림

슬픔 속 희망찾기 4월 유가족 미사
때: 4월15일(토) 10시(묵주기도), 10시30분(미사봉헌)
곳: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 **집전:** 차바우나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2박3일 전국 성지순례 접수 안내
때: 5월19일(금)~21일(일)
곳: 마산교구, 부산교구 순례지
신청: 4월10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스마트폰 접수 가능, 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
회비: 35만원(숙소, 차량, 식사, 자료 포함)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4월11일 매월 두번째(화) 13시30분~16시30분
곳: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대축일과 기념주일 묵상곡을 위한 성음악 합창 심포지엄(성음악위원회)
대상: 전국 모든 가톨릭 성가대(본당, 청년, 장년 등)
때: 4월29일(토) / **접수 및 등록:** 4월11일(화)~21일(금)
접수방법: 홈페이지(www.casm.co.kr) 참조
곳: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최양업홀(중림동)
문의: 02)393-2213~5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사무국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64차 미사 4월11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평양교구 진남포 본당, 중화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2023 DMZ국제청년평화순례 참가자 모집
때, 곳: 8월7일~11일, 강화 · 파주 · 연천 · 철원 · 접경지역 / **홈페이지 참조:** http://caminjok.or.kr
대상: 평화에 관심있는 19세~30세 청년(내 · 외국인)
회비: 10만원 / **접수:** 4월28일까지 이메일 접수
문의: 02)753-0815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4월15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3층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2박3일 대침묵 피정
주제: 나는 내 인생을 너는 네 인생을
때, 곳: 4월14일~16일, 아론의 집
지도: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한국평단협 온라인 어머니, 아버지학교
때: 6월23일~7월14일 매주(금) 오후 7시30분
수강: 비대면 온라인 교육(줌) / **회비:** 4만원
접수: 서울평단협 홈페이지(www.clas.or.kr)
문의: 02)744-0840 햇살사목센터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여서현 이콘전: 1전시실
안동교구 주보표지 성화전: 2전시실
이숙경 산마르코주얼리전: 3전시실
전시일정: 4월5일(수)~13일(목)

제49차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때, 곳: 4월20일 매월 세번째(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주례 및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umjesupassio@gmail.com)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4월15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회	5월7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새혼 포함)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3박4일)
회비: 75만원·115만원 / 문의: 010-3645-9028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4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때: 4월26일(수) 19시30분 / 대상: 남녀 청년
곳: 명동대성당 영성센터 B401호 / 010-7197-1390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강사: 장재봉 신부, 이현주 회장
찬양: 고영민 부회장, 정진숙, 손현희 팀장
때: 4월15일(토) 12시30분~17시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문의: 010-6281-8626, 02)777-1773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4월14일~17일·5월5일~8일·5월19일~22일·6월23일~26일·7월7일~10일·7월28일~31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자연순례: 4월22일~24일·4월26일~28일·4월30일~5월2일·5월4일~6일·5월8일~10일·5월13일~15일·5월22일~24일·5월29일~31일·6월4일~6일·6월10일~12일·10월1일~3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직장인을 위한 개인 피정 및 생태 피정
곳: 라베르나 기도의 집(주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개인 피정	4월14일~16일, 4월21일~23일	문의: 010-6419-2694
생태영성 피정	4월15일~16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자연 피정·제주 면형의 집 피정센터

자연순례	5월12일~14일, 6월3일~5일
성지순례 (추자도)	5월6일~9일, 5월18일~21일, 5월27일~30일, 6월10일~13일, 6월17일~20일

교육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8기 개강
때: 3월27일(월) 14시·3월30일(목) 19시
곳: 가톨릭회관 5층 / 회비: 7만원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 무료 강좌
곳: 성바오로수도회(강북구 송중동) / 미사 있음

매주 (목)	**마르코복음 강좌(예수님 수의와 함께)** 10시~12시30분 / 010-6287-9753
	성서 입문 14시~16시30분 / 010-6293-2060

'다함께 성가를' 발성교실 / 문의: 010-9842-8818
가톨릭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띠나음악원(주최, 신촌)

음악심리상담사자격 초급반
때, 곳: 5월3일~17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신부와 함께하는 영성독서 프로그램(영성독서지도사 양성 포함) / 문의: 02)439-3811
대상: 신자들의 영적 성숙 및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 / 회비: 10만원
내용: 인문독서(6주), 수료증이나 자격증 수여
때: 4월17일부터 매주(월) 19시30분~21시30분
곳: 명동대성당 교육관 304호
주최: 가톨릭독서아카데미(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인천교구 지혜의샘(북방선교 기도공동체) 교육
곳: 지혜의 샘(부천시 송내동 366-5)
문의: 010-5454-1871, 010-3248-9705

얼쑤, 쉬운 맥성경 갈무리	구약 (월) 오전·오후 2 강의
	신약 (수) 오전·오후 2 강의
성시간과 함께하는 철야 기도회	(금)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2023년 재속 맨발 가르멜회 회원 모집
가르멜의 정신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만 19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교우
4월18일까지 접수 / 문의: 010-3459-8905, 010-3080-7224 서울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미사

살레시오와 꿈 월례미사
지도: 유명일 신부/ 문의: 02)828-3522
때, 곳: 4월10일(월) 10시30분, 가톨릭회관 2층 205-3호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셋째주(토) 4월15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열린미사
나눔: 배시현(골롬반 신도선교사)
때, 곳: 4월15일(토) 16시, 골롬반 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 문의: 02)953-0613

안내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영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되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전문 심리상담	개인심리치료, 가족심리치료(정서불안·우울·분노·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종합심리검사
사목상담	성격, 관계, 정서(불안·우울·단절감) 등 심리적 고통에 관한 상담(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 한해서 1만원으로 진행)

유관단체 알림

코로나로 중단된 '떼제 노래와 함께하는 기도모임' 재개
대상: 청년, 청소년과 동반 부모 / 문의: 02)744-0840
때: 매월 세번째(토) 4월15일·5월20일·6월17일 16시
곳: 햇살사목센터 성당(주최, 혜화로2길20)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 우울증, ADHD, 공황장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상담을 원하는 분, 심리검사
아트살롱 '함께 그려요' 드로잉 모임(성인반): 수시 모집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남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가톨릭교리신학원 총무과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성실하고 건강하신 분
서류: 입사지원서, 교적 사본, 자기소개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이메일(ccige@catholic.or.kr) 접수 / 문의: 02)747-8501

여의도동성당 사무원 모집 / 문의: 02)782-1259
분야: 사무원 1명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행정, 회계업무, PC(한글·엑셀)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4월20일까지 방문·우편(우 0734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257 여의도동성당) 및 이메일(peterpark2017@seoul.catholic.kr) 접수

명일동성당 관리인 모집
분야: 관리인 1명(계약직) / 이메일 문의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시설물 관리, 미화, 기타 방호 업무 가능하신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4월20일까지 방문·우편(우 05235,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6길 28) 및 이메일(belle14@seoul.catholic.kr) 접수

위례성모승천 성당 관리인(방호원) 모집
분야: 계약직 관리인(방호원) 1명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 문의: 02)404-1700
업무: 시설물 관리, 청소, 영선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교적 본당 사무실에 발급 신청)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연락) / 4월30일(일)까지 방문·우편(우 05849, 서울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470 위례성모승천성당) 및 이메일(kis9387@hanmail.net) 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중곡동 등)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4월16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및 공연 게재신청: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 – 게재신청 – 문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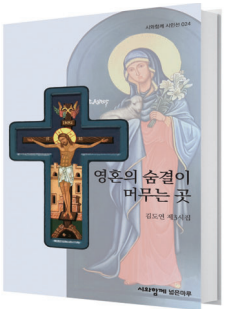
게재된 신간 검색

신간

인간적인 죽음을 위하여

유성이 지음
멘토프레스 | 319쪽 | 1만3천8백원
문의: 02)2722-0907

이 책은 2021년 1월 22일 호스피스 병원에서 만난 88세인 어르신(도미니코)이 죽어가는 시간 속에서 생명을 지닌 한 인간으로 존재했던 22일간 이야기다.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자신을 '내어줌'이란 무엇인가 '영적 돌봄'이 무엇인가, 의문을 던지며 성찰케 한다.



신간

영혼의 숨결이 머무는 곳

김도연 지음
도서출판 넓은마루 | 150쪽 | 1만8천원
문의: 010-3768-8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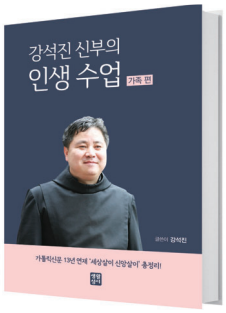
김도연 작가의 성시로 작가의 성화 작품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김도연 작가의 작품은 캄보디아 프놈펜 예수회 공동체, 프놈펜 한인 성당, 예수고난회, 러시아 정교회 대한교구 그리스도부활성당 외 다수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신간

숨은 행복 찾기

이충무 지음
바오로딸 | 184쪽 | 1만2천원
문의: 02)944-0944

평범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고 무심하게 넘기기 쉬운 일상에서 깨알같이 모습을 드러내는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기쁨과 복된 만남을 나누는 에세이다. 「사방이 온통 행복인데」의 저자 이충무 교수의 두 번째 수필 모음집으로 <대전주보>에 연재하고 있는 글들에서 뽑아 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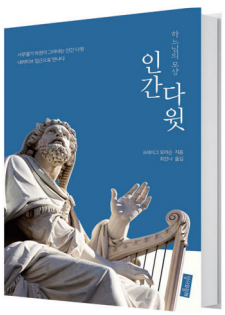


신간

강석진 신부의 인생 수업–가족 편

강석진 지음
생활성서사 | 344쪽 | 2만원
문의: 02)945-5987

가톨릭신문에 13년간 연재한 '강석진 신부의 세상살이 신앙살이'를 총정리한 두 권의 책 중 첫 번째 책이다. 수도자이자 사제로서 25년간 생활해 온 저자는 사목을 하면서 깨닫고 듣고 알게 된 사연들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하느님의 사랑을 일깨워 준다.



신간

인간 다윗

크레이그 모리슨 지음
성서와함께 | 588쪽 | 3만2천원
문의: 02)822-0125

이 책은 사무엘기 하권을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저자는 특히 각각의 장면들을 대구, 병행, 포괄을 형성하는 절들로 구분하고 도식화하여, 그 짜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인간적인 고뇌를 가진 다윗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사무엘기 하권을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공연

올리비에 라트리 오르간 리사이틀

입장권: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031)8019-5403(https://mocatholic.or.kr)
롯데콘서트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10명 30% 할인

올리비에 라트리 오르간 리사이틀이 5월 16일(화) 19시 30분, 롯데콘서트홀에서 있다. 오르가니스트로서 전 세계에 널리 오르간을 알리는 대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프랑스 출신 올리비에 라트리는 세계 각국의 공연장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명동대성당 청년전례단 '쉐마' 신입단원 모집

·모집대상 : 주일 오후 7시 청년미사 전례봉사 및 회합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청년
·모집기간 : 4월 11일(화)까지
·신청방법 :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공지 참조
·지원문의 : duohai89@naver.com

◉ 명동대성당 청년성가대 '엘리' 단원 모집

·모집대상 : 매주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는 청년
·모집기간 : 4월 12일(수)까지
·제출서류 : 입당신청서 1부, 교적증명서(오디션 당일 제출)
·오디션 및 면담 : 4월 16일(주일) ☞ 성가 중 자유곡으로 1곡 준비, 악보 2부 지참
·지원문의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명동성당 청년성가대 ELI 단원모집

◉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활동 : 주일 오후 4시 미사의 성가 봉사
·대상 : 성음악에 관심 있는 20~30대 가톨릭 신자
·오디션 일시 : 4월 16일(주일) 오후 5시
·오디션 장소 :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명례방
·오디션 준비 : 가톨릭성가 1곡 또는 자유곡 1곡
·문의 : 네이버 검색 ☞ 로고스합창단→입단문의 또는

QR코드 스캔하여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전에 홈페이지 입단문의 후 지원서 제출 필요!

◉ 새벽미사봉사단 신입단원 모집

·모집대상 :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된 신자로서 평일 오전 7시 미사 해설 및 독서 봉사가 가능한 교우
·접수마감 : 4월 23일(주일)
·지원문의 : 단장 ☎ 010-3170-7878 (※문자 요망)

◉ 명동대성당 청년성서모임 신입 봉사자 모집

·모집대상 : 가톨릭 청년성서모임 창세기 연수 이상을 수료한 청년
·모집기간 : 4월 23일(주일)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카페(cafe.naver.com/ourbible) 공지글 내 신청서 작성 (※공지글 필독 요망)
·지원문의 : 이메일(mdsd_bible@naver.com) 문의

◉ 명동대성당 청년 레지오 마리애 신입단원 모집

·모집대상 : 쉬는 교우가 아닌 청년으로 매주 회합과 청년미사, 기도와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신청방법 : 카카오플러스친구 '명동성당 청년레지오'에서 활동내용 확인 후 '입단신청' 터치, 신청폼을 통해 신청

◉ '봉사뱅크' 봉사자 모집

·대상 : 가톨릭 교우 (예비신자도 환영합니다!)
·활동 : 주일 오전 10시 미사 및 고해소(평일 & 주일) 안내
·신청/문의 : 봉사뱅크 ☎ 010-3668-5039 (※문자로 문의 요망!)

◉ 상설 고해소 휴무 : 4월 5일(수)~4월 16일(주일)

◉ 연령회 월례회의

·일시/장소 : 4월 9일(주일) 오전 11시 / 꼬스트 홀
※5월은 월례회의가 없고, 성지순례로 대체됩니다.
장소 : 하우현성지, 5월 8일(월) 오전 9시 출발

◉ 첫 고 해

3월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그간 첫고해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한 고해성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당일 고해성사 후 세례식 사진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 4월 11일(화) 오후 7시 30분 / 소성당

◉ 2023년 상반기 견진성사 신청

·견진성사 : 5월 28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교리시간 : 4월 16일 ~ 5월 21일 (매 주일) 6주간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대면 수업
★★ 오후 1시 40분까지만 출석으로 인정, 6주 모두 참석 시 견진성사 가능 ★★
·신청대상 : 가톨릭에서 세례성사를 받고 첫영성체를 한 20세 이상 성인 교우
·교리장소 : 교구청본관 401호
·교리교재 :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들」, 가톨릭출판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著, 정가 6천원
※교재는 성물방이나 가톨릭출판사(www.catholicbook.kr)에서 각자 구입하여 지참
·준비사항 : 아래 구비서류 지참
·신청방법 : 온라인·전화 신청 불가!
4월 9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 방문 접수
·구비서류 :

대상자	구비서류	발급장소
명동성당 교적신자	① 증명(또는 반명함)사진 1장	-
	② 세례성사증명서 ③ 견진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교적 본당
	④ 견진 대부모님의 견진성사증명서	대부모님의 견진본당
타 본당 교적신자	상기 구비서류(①~④)	교적 본당
	⑤ 신청자 본인 교적증명서	
	⑥ 견진의뢰서	

※상기 안내된 구비서류들을 빠짐없이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⑥ 견진의뢰서'는 견진신청서 본문 중앙에 명시돼 있으며, 교적 본당 사무실을 통해 반드시 주임 신부님의 서명 또는 직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5월 21일(주일)까지 '접수비(현금 10,000원)'와 '견진성사 감사예물'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1986년 창단된 한국 최초의 소년합창단 '명동대성당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 8세~12세 가톨릭신자 남아
·문의 : 자모회장 ☎ 010-8802-9003

774-1784(대)
753-1784(FAX)
본당 연령회
010-6375-1784

천주교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신부
수석부주임 전두병(요 아 킴)신부
부 주 임 진슬기(토마스아퀴나스)신부
부 주 임 조인기(암브로시오)신부
보 좌 이철규(아우구스티노)신부
보 좌 김영우(스테파노)신부
보 좌 리백진(파비아노)신부

미사 성가	입당 : 135	봉헌 : 132, 129, 131	성체 : 138, 128, 130	파견 : 134

축 부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본당 사제단, 수도자, 사목협의회 일동 -

《 세례성사를 축하드립니다 》

2022년 10월에 입교하신 예비신자분들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세례성사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시는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드립시다.

◉ 2023 본당의 날 행사 '님 찾아 나선 길'

·행사명 : **님 찾아 나선 길 (#뚜벅뚜벅 #또박또박)**
·대 상 : 누구나 (900명 선착순 마감)
·때・곳 : 6월 6일(화) 박달재자연휴양림→배론성지 (6.5㎞)
·준비물 : 2시간 이상 산행을 위한 간편한 복장, 미사도구 (☞ 미사 중 예물 봉헌 있음.)
·일 정 : 06:30-08:30 이동 (집결지→박달재자연휴양림)
08:30-11:00 산행
11:00-12:00 **미사 (염수정 추기경님 주례)**
12:00-15:30 점심식사 및 성지순례
작은 음악회
15:30-17:30 출발 (배론성지→집결지)
·집결지 : 버스 출발장소 (신청・접수 시 선택)
① 명동 가톨릭회관 후문
② 노원역 6번 출구 현대차 앞
③ 불광역 8번 출구 건너편 롯데리아
④ 양재역 12번 출구 국립외교원 버스정류장 앞
⑤ 신도림역 3번 출구
·참가비 : 현금 2만원 (왕복 교통비)
·접 수 : 4월 9일, 16일, 23일 성당마당 현장 접수
오전 11시~오후 2시, 오후 4시~오후 7시
·문 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물과 간식, 점심식사는 본당에서 제공합니다.

◉ 주님 부활 대축일 '나눔의 장'

가톨릭회관에 입주해 있는 수도회와 단체들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나눔의 장'을 성당마당에서 엽니다.
·일 시 : 4월 9일(주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참여단체 : 1898플러스, 까말돌리 수도원, 가톨릭출판사, 가톨릭여성연합회

◉ 본당 사무실 휴무

직원 워크숍 관계로 **4월 11일(화)**은 사무실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너른 양해 바랍니다.

◉ 2023년도 초등부 첫영성체 교리반 신청

·대 상 : 명동에 교적이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어린이
·교리시작 : 4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교리일정 : 토요일 오전 10시 미사 참례 후 11시부터 12시까지, 5개월간
·신청기간 : 4월 16일(주일)까지 (※선착순 30명)
·신청장소 : 본당 사무실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 교적증명서 함께 제출 필수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3/27-4/2).....33,627,000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헌금.....34,119,000
- 사순절 이웃돕기 특별 헌금.....13,535,000
- 감사헌금 (3/27-4/2).....2,564,000

고 스텔라 / 고 안젤라 / 구 구네군다
김 글라라 / 김 대데레사 / 김 라파엘
김 미카엘 / 김 미카엘라 / 김 비비안나
도 로사 / 도 카타리나 / 오 미카엘 / 오 요셉
이 리베라도 / 임 사무엘 / 전 세실리아
전 요셉 / 전 이냐시오 / 조 마리아막달레나
최 베로니카 / 고희석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대성당	오전 7시, 오전 9시(영어미사), 오전 10시(아미쿠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오전 11시, 낮 12시(교중미사), 오후 4시, 오후 5시, 오후 6시, 오후 7시(청년미사), 오후 9시		
주일미사 (토요일)	대성당	오후 6시, 오후 7시(늘푸른청년미사)		
평일미사	대성당	월	오전 7시, 오후 6시	
		화-금	오전 7시, 오후 6시, 오후 7시	
		토	오전 7시	
성지미사	대성당	월-토	오전 10시	

유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매월 첫째 주일 오후 1시 30분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고해성사 (Confession)

한국어	토-일	오전 10시 - 오후 8시		
	화-금	오전 11시 - 오후 8시		
	월	오후 1시 - 5시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영 어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금	오후 4시 - 6시	토	오후 3시 - 5시